아시아 불자 장애인 시집 발간 도와주세요

보리수아래, 한국 · 베트남 장애인 시집 스토리 펀딩

지난해 미얀마편 이어 2번째
양국 중증장애작가 10명 참여
장애 주제로 詩 선보일 예정
9월 25일까지 1천만 원 목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시아 불자 장애인 시인들의 시집을 발간하기 위한 스토리 펀딩이 시작돼 화제다.

불자 장애인 신행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8월 9일부터 '아시아 장애인들의 공동시집 제작'을 주제로 스토리 펀딩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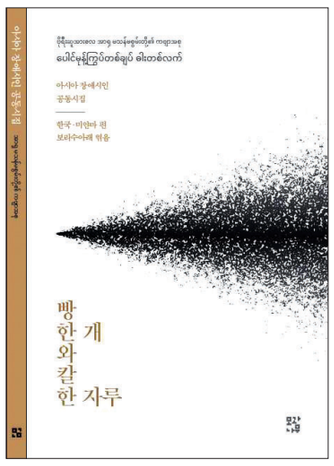
한국과 베트남 중증장애시인이 참여 · 발간하는 〈시로 엮은 내 사랑을 받아주오〉는 장애라는 특별한 개성이 담긴 주제와 이를 통한 시심(詩心)을 엮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집이다. 또한 주최 측은 참여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열어 대중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시집에는 중증장애작가 10명의 참여해 시 40편을 선뵌다. 시집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동시 수록된다.

한국작가로는 권오웅(지체장애) · 김준엽(뇌병변장애) · 정상석(뇌병변장애) · 이순애(지체장애) · 김영관(교통사고중도뇌병변장애) · 성인재(뇌병변장애) 시인이, 베트남에서는 짠 응옥란(후천적 장애) · 응우옌 비엣 아잉(시각장애) · 짠 홍 장(지체장애) · 도 쩡 커이(관절장애) 시인이 참여한다.

안철환 동작구문인협회 사무국장과 베트남문인회 통번역가인 레딩환 씨가 번역 작업을 맡았다.

아시아 불자 장애인 시인들의 시작(詩作)을 통한 교류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보리수아래가 주관하는 지난해 한국 시인 5명과 미얀마 장애작가 8명이 참여해 공동시집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을 발간했다.


보리수아래에서 지난해 발간한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미얀마 편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의 표지. 올해에는 베트남 편을 선보인다.

박경식 부산외국어대 미얀마어과 교수와 미얀마대사관 레이레이 몬의 번역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동시 수록했고, 기념 북콘서트도 열었다. 11월에는 미얀마 양곤의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를 직접 방문해 책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당시 시집에 참여했던 미얀마 시인 미얏 쭈 에잉 씨는 책을 전달받고 "내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돼 책으로 나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리수아래가 주관하는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베트남 편의 스토리 펀딩은 오는 9월 25일까지 이어진다. 목표 모금 금액은 1000만원이다.

후원 펀딩은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며, 금액을 정하지 않은 통큰 펀딩도 가능하다.

후원금은 아시아 장애인들의 공동시집 발간과 번역, 베트남시인 초청과 북콘서트 개최, 참여 작가들의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제작한 공동시집은 작가, 한국문인협회, 장애인단체, 정부기관, 도서관, 아시아 각국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펀딩 금액마다 일종의 보상인 '리워드'도 제공된다. 1만원의 경우 보리수아래 간행물과 장애시인과 음악인들의 기증 소품이, 2만원은 보리수아래 서정음반 '시, 그대 노래로 피어나다'가 후원자에게 배송된다.

3만원 후원자에게는 이번에 발간되는 공동시집과 서정음반이, 5만원 후원자에게는 시집과 음반, 북콘서트 초대권이 제공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불자 장애인 문인들이나 음악가들은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다. 외국 작가와의 교류는 더욱 어렵다"면서 "장애인공동시집 발간은 한국과 외국 장애인 문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업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문인과 음악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불자와 국민들의 후원금은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펀딩 후원을 요청했다.

펀딩 주소: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20038?

대학생 불자들 평화 통일 기원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광복 73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영부디스트 캠프에서 평화통일 발원문을 발표했다.

대불련은 발원문을 통해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다시 대화를 하고 손을 맞잡았다"면서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흘린 슬픔의 눈물들이 환희의 눈물이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어 평화를 찾고, 정법과 정진의 힘으로 민족의 연화를 피워 불국정토를 건설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님이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학생 불자들은 참다운 보시행 실천을 통해 서로 마음을 채워가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에 자비의 광명을 두루 비추는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다.

노덕현 기자



故김주중 노동자 49재를 찾은 추모객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來生엔 정리해고 없는 평등세상 가기를"

조계종 사노위, 8월 14일 쌍용차 故김주중 해고노동자 49재

"비록 이 생에선 복직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선 부당해고 없는 안락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故김주중 해고노동자 영전에 잔을 올립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쌍용자동차 복직을 기다리다 6월 27일 생을 마감한 故김주중 해고노동자 49재 막재를 서울 중구 대한문 분향소 앞서 8월 14일 봉행했다. 이날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과 사노위 소속 지몽 · 법상 · 시경 · 우담 · 대각 · 보영 · 현성 · 서원 스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조합원, 시민 등 70여 명이 자리에 함께 했다.

막재는 △〈천수경〉 송주 △추도사 △대령 △정근(나무아미타불) △재를 위한 축원 △회심곡 순으로 진행됐다. 집전을 맡은 스님들이 염불을 독송하는 동안 추모객들은 영단에 올라가 절을 하거나, 눈을 감고 합장한 채 영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영단 아래서 사노위 측 도움을 받아 잔을 올렸다.

김지원 수습기자

"200세까지 살아서 '위안부' 문제 해결"

이용수 할머니, 8월 11일 日 성노예 피해자 기림제서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주인공 이용수 할머니가 기림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맞은 첫 기림일에 앞서, 불교계가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제가 열렸다.

6명의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제3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행사'를 8월 11일 개최했다.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야외광장서 열린 행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시민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옥선(88), 이용수(91), 박옥선(94) 피해자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소속 각 지자체 의원, 자원봉사팀, 후원 협력업체, 중 · 고등학생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회는 가수 겸 연기자 김동완 씨가 맡았다. 행사는 △고인이 된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 △문화공연 △인사말 △기림사 △故김순덕 할머니 생애사 출판기념회 △기념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된 합의 등을 꼬집고, 앞으로도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림사서 "2015년 12월 28일, 지난 정부는 우리 의사와 무관한 '위안부' 합의를 일본과 했으며, 이후 비밀협상 등도 있었다"며 "관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처벌, 일본 정부에게 받은 10억엔 반환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나이가 올해로 91세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라며 "200세까지 살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다짐해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 성공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14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는 2017년 10월 말, 2744건에 달하는 피해자 증언과 자료들을 종합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 등재 신청한 바 있다. 일본의 전방위 로비로 인해 끝내 불발된 뒤로 등재추진은 중단됐다.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은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이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기쁘다"며 "일본의 진실규명과 공식사과,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베트남 여행업계 사로잡은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템플스테이 테마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8월 9~12일 동남아권 방한 관광객들의 템플스테이 참여 확대를 위해 베트남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는 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가 함께 주최했으며, 특수 목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발한 '심신치유 테마 코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심신치유 테마 코스'는 자연, 음식, 치유, 명상 등을 주제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팸투어 참가자들은 첫날 강화 전등사에서 범종, 대웅전, 업경대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염주 만들기와 스님과의 차담을 체험했다. 이후 남양주 봉선사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서울 조계사 · 진관사에서 △연잎밥 만들기 △차 명상 △예불 △타종체험 △108배 등을 체험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중 연꽃과 관련된 '사찰음식 만들기'와 '컵등 만들기'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제2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갑숙 장편소설
무명속을 헤매던 삶의 길목에서 다가온 순간의 빛, 그 빛이 밝혀주는 진정한 만남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꺼지기 쉬운 빛


값 13,500원
※ 본 도서는 전국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법계문학상
제3회 법계문학상 공모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법계문학상'은 역량 있는 불교문학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공모합니다.

공모분야
공모분야 장편소설, 장편동화
공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소재
공모분량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분량
장편동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

일정 및 방법
응모기간 2018. 10. 31까지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이내 작가
※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대상 1작품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문의
http://blog.naver.com/batistaff
Tel : 070-8880-8202 / E-mail : batistaff@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21,1101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응모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